‘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개소

전주시, 대한민국 드론산업 육성 거점공간… 첨단드론장비 15종 등 갖춰

김승수 시장 “탄소 · 수소 · ICT산업과 연계 드론산업 미래먹거리로 키울 것”

지역 드론기업들을 위한 거점공간이자 대한민국 드론산업 발전을 이끌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3일 팔복동 혁신창업허브 내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윤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

국비 40억 원을 지원 받아 혁신창업허브 1층과 5층에 조성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대한민국 드론산업 육성 거점공간으로, △CNC △SMT △실내구동시뮬레이터 △워크스테이션 △3D프린터전자설계SW △AI데이터 처리시스템 △고급형3D프린터 △사전비행안전성 평가장비 △구조안정성 평가장비 등 드론기업과 예비창업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첨단드론장비 15종을 갖췄다.

전주시는 23일 팔복동 혁신창업허브 내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윤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바이로봇, ㈜드론프릭, ㈜우리아이오,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디클래스, ㈜티마텍, ㈜비아, 인공지능자율시스템센터, ㈜테라릭스, 드론테크, ㈜티엔티, 맨든 등 드론 관련 산·학·연 13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는 공용장비를 활용한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나서게 된다.

시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전주첨단벤처단지 안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가 조성되는 만큼 드론 예비창업자 발굴과 육성, 초기창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만큼 전주가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이끌 거점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승훈 ㈜비아 연구소장과 안현수 ㈜ANH 안현수 대표, 박선기 ㈜우리아이오 대표 등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드론산업분야 진출을 위해 전주를 선택한 이야기와 첨단 드론장비사용으로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성공한 이야기 등을 소개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센터를 돌아보며 드론 장비를 직접 시연해보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보급하고 드론 관련 인재육성 등 드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도전을 이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젊은 인재와 관련 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주의 특화산업인 탄소·수소·ICT산업과 연계하여 드론산업을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주 방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 격려 · 의견 청취

전주시는 23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전주지역 아동학대 대응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인력을 격려하기 위해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이날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과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 등과 함께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를 둘러보고 상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장업무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공공화를 통해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를 전주시로 이관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심층·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완산구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해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완산·덕진 경찰서, 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다.

동시에,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적극 추진과 아동학대 인식개선,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 방제약제 공급

전주시는 총 1억 원을 투입해 전주지역에서 배·사과를 재배하는 206개 농가(149ha)에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과수화상병은 배와 사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에서 병반이 나타나고, 새순이나 가지가 구부러져 흑색으로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시는 올해부터 농촌진흥청 시행지침이 변경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의무화 횟수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개화 전 방제를 실시하고, 4월 상순부터 2~3회에 걸쳐 개화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연간 2회 진행하던 과수원 예찰활동을 4회로 강화하고, 다음달부터 배·사과 과원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배·사과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농가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했을 경우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야 하며,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전북대-6개 의료기기 선도기업 ‘맞손’

전북대 바이오 시설 · 장비 활용 · 기술이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국내 6개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채수찬 전주시 바이오 헬스케어 추진단장, 김학용 전북대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장,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 등 6개 의료기기 기업대표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대 바이오 시설·장비 활용 및 기술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6개 기업은 ㈜시지바이오, ㈜태웅 메디칼, ㈜티디엠, 시브이바이오, 오에스와이메드, S&G바이오텍 등이다. 이들 기업은 스텐트, 카테터 등 중재의료기기를 주력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국내 6개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참석자들은 시와 전북대가 구축 중인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관련 바이오 시설·장비를 공유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에 협력하고, 기업 공간 지원 등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공유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으자고 했다.

시는 이날 협약을 토대로 향후 시지바이오 등 국내 선진 의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업과의 협업과제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지바이오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스텐트(혈관의 내강을 벌리는 기구)를 국산화(심혈관 생체흡수성)하는 데 성공한 혁신기업이다.

시는 향후 기업들이 전주에 연구소나 자회사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본사 유치를 꾀해 전주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바이오 의료산업을 이끌어갈 거점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자

농생명 뷰티 · 식품 분야 기업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31일까지

전주시가 식품기업과 화장품기업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 이하 연구원)은 오는 31일까지 전주에 주소를 둔 농생명 뷰티·식품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전주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인 이 사업은 전주지역 농생명·식품 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농생명소재연구원은 그간 이 사업에 참여했던 25개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실용화 가능성 확대에 힘쓰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농생명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기반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성분분석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수출지원 △마케팅 홍보 △맞춤형 성장지원 등 5가지 분야로, 총 8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18일) 현재 전주지역 내에 소재한 뷰티·식품 관련 기업이다. 전·후방 산업군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희망 기업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누리집(www.jami.re.kr)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제출서류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오병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전주시 관내 기업을 돕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면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기업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관련 기업의 사업 성장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